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0년 농가소득 전망¹⁾

-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20년 농가소득 전망을 발표하였음.
 - 주요 전망으로는 △농가 현금 수입이 감소, △정부 직불금의 증가, △총생산비의 감소, △농가 자산의 증가 등을 발표함.
- 2020년 농가의 총 현금 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23억 달러가 감소한 3,583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며, 작물 재배 농가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축산 농가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식량 작물인 대두, 옥수수, 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 수입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과일, 채소, 견과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축산 농가 중, 육우, 돼지, 육계를 기르는 농가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의 농가 지원금액은 2020년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식품 지원 프로그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소규모 경영체를 돋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 시장촉진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농업위험보장(Agriculture Risk Coverage) 등의 예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자금은 2019년에 비하여 40억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농가의 총 생산비는 전년(2019년) 대비 46억 달러가 감소한 3,442억 달러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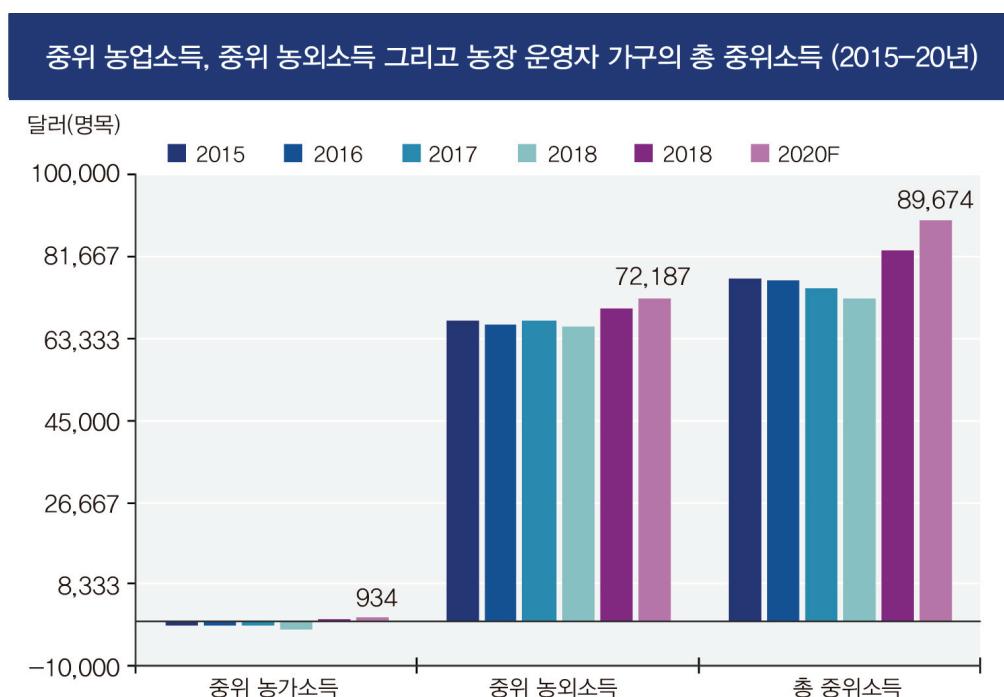
1)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0 Farm Income Forecast”(2020.9.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 2014년 총 생산비가 4,271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총 생산비는 최고점에 비해 1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사료 구매, 노동비, 비료비, 종자 구매 등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가축 구매비용, 제초제 구매비용, 이자, 연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위 농가의 소득은 2019년의 83,111달러에서 89,674달러로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중위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중위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농외소득에서 발생하였으며, 정부 지원금 증가로 인하여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중위 농가의 소득 변화 |



주: F는 예측치를 의미함.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nd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2020년 9월 2일 데이터 기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9.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2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²⁾

-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년 2월~4월) 미국의 실업률은 3.5%에서 14.7%로 상승함. 이로 인해 2020년 7월 4일까지 약 5천만 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됨.
-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 이후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실업률은 급상승했지만, 농업 분야는 같은 기간 실업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
 - 이는 농업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분야”로 지정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임.
- 코로나19가 농업부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식품 공급 사슬의 각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식품 공급 사슬을 세 부문(식품 서비스·식품 가공·식품 생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식품 서비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업률이 5.7%에서 35.4%로 상승함. 요리사, 바텐더 등 약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임.
 - **(식품 가공)** 같은 기간 실업률이 5.7%에서 10.1%로 상승함. 식품 가공 부문도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힘든 육류 가공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설의 폐쇄로 실업률이 증가(예: Smithfield의 South Dakota 시설 폐쇄)하여 육류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24.5%p 감소함.
 - **(식품 생산)** 같은 기간 실업률이 11.0%에서 9.6%로 1.4%p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7%p 감소) 덜 감소했지만 타 부문과 비교해 영향이 미미한데 이는 식품 생산 부문이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식품 생산 부문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힘든 노동집약적 작물(과일 및 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 사재기(panic buying)의 효과는 미미했는데, 이는 사재기로 인한 수요증가가 저장성이 높은 상품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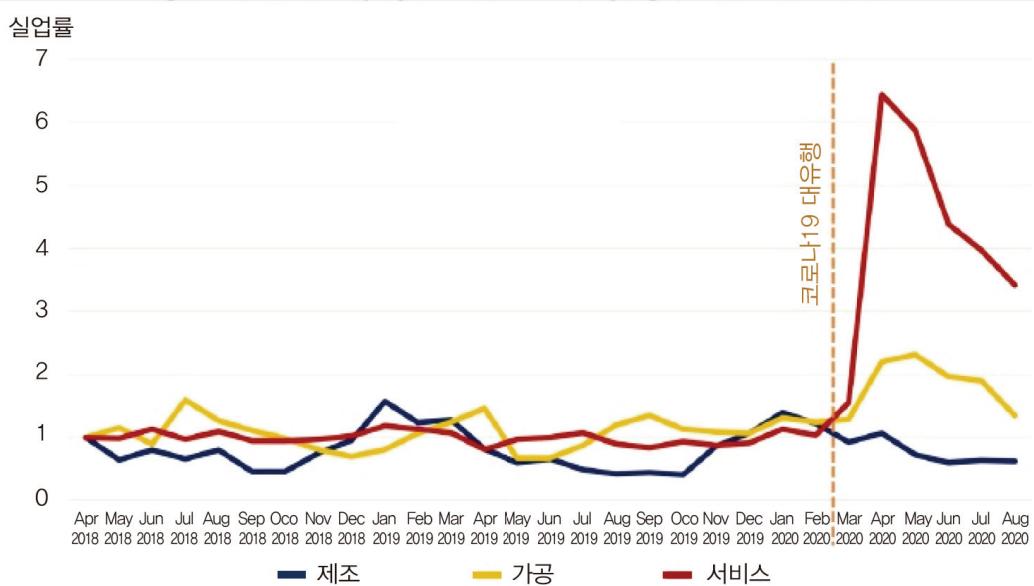
2)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에서 운영하는 Choice Magazine에서 개재한 특별 테마 “COVID-19 and the Agricultural Industry: Labor, Supply Chain, and Consumer Behavior”(2020.9.16.)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choicesmagazine.org/>).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 식품 공간 사슬의 세 부문에서의 실업률 변동 |

Figure 4. 농업 하위 부문에서 미국 실업률



주: 이 수치에 표시된 실업률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0e

■ 코로나19가 비농업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음.

- 휴양 및 숙박, 의료, 교육, 그리고 전문직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음.
- 의료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2.2%에서 10.4%로 상승(27,000명 임시 해고)함.
- 교육 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4.6%에서 12.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으로 인한 결과임.
-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전문 엔지니어 등)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4.4%에서 9.0%로 상승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계약직 균에서 두드러짐.

■ 코로나19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인종 간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히스패닉 노동자 그룹에서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17.4%p 상승). 이는 히스패닉 노동자 고용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휴양, 숙박, 외식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미국 정부의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음.

- 2조 달러 규모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를 마련하여 기업, 소규모 사업장, 가계, 실업 보험 급여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됨.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총 3억 4,900만 달러 규모) 지원금의 60%를 직원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함.
- 농업 분야의 경우 160억 달러가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30억 달러는 잉여농산물을 구매하여 푸드뱅크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됨.
- 가계 부문 경기 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은 성인 가구원 1인당 \$1,200, 17세 미만 가구원 1인당 \$500을 지급함.
- 연방 전염병 실업 보상 프로그램(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FPUC)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매주 600달러를 최대 13주간 지급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코로나19에 대응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³⁾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식료품 소비행태의 뉴노멀(New Normal)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분기 미국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 후, 최저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최근 100년 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함.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변화했으며, 팬데믹이 계속되는 한 변화된 소비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소비행태 변화를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 관찰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제시함.

■ [코로나19 발생 초기] 팬데믹 선언과 재택 명령으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 식료품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50%p 급증하였으며, 3월 이후에도 연초 대비 7.5%p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이는 사재기를 통한 식료품 비축의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팬데믹 기간에도 식품 산업 분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음.

3)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에서 운영하는 Choice Magazine에서 개재한 특별 테마 “The Path Forward: U.S. Consumers and Food Retail Responses to COVID-19”(2020.9.16.)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choicesmagazine.org/>).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 식료품 소비 증가는 재택 명령이 시행된 주(state)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한 외식감소의 결과로 보임.
- 여행 및 여가 상품의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과 같은 고가 상품 (Big-ticket items)의 소비 역시 동기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고소득 계층과 40대 미만 소비자 계층에서 두드러짐.
-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냄으로 인해 밀가루와 같은 식품 재료와 청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재기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소비행태 관찰 후 식료품 품귀현상을 우려한 비축 활동으로 보이며, 이는 감정적인 동기(Emotion driven)가 지배적임.
-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와 관련한 변화 - 예를 들어, 상점 운영 시간의 제한 - 로 인해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으로 보임.

■ [코로나19 발생 중기]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5월부터 일부 주(state)에서 경제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감염 급증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GDP는 6~60%p, 소비자 실구매는 4.7%p 감소가 예상됨. 실업률은 약 32%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는 대공황기 최고 수준이었던 25%를 상회함.
- 일자리 불안정은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불안정은 고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미침. 또한, 소득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젊은 계층의 경우 향후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 하였으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 중년 가구의 경우 향후 소비 변화에 대한 응답을 꺼림.
- 사재기 현상은 둔화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판단(Ration driven)의 결과로 보임.
-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외에 지역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함. 이들은 저렴한 가격 여부보다 높은 신선도와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함.
- 더 많은 식료품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구매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함.

■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소비행태의 뉴노멀(New Normal)은 다음과 같음.



국제 농업 정보(2020. 10.): 미국

-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전망
-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 예를 들어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 - 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함.
- Dietrich 외(2020)가 수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무위험(Risk-free)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임.
- 이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Fork)의 공급 사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를 보임. 이는 식품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용이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음.
- 식료품 유통 업체들의 온라인 구매 채널 제공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재고 관리, 배송, 매장 핵심의 자동화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따라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함.
-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 식품(HMR 혹은 ready to eat meals)과 식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과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식료품의 가치 사슬의 발달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